

# 광주 '목장지원'·전남 '땅끝협력' 등 대북사업 훈풍 기대

광주, 통일 동화책 지원·축산업 협력·통일 대장정 추진

전남, 함경북도 미역·쌀 보내기·불우아동 지원 등 탄력

남북이 나흘간 걸친 고위급 접촉을 통해 다양한 분야 민간 교류 활성화에 합의하면서 그동안 중단됐던 광주·전남 등 지방자치단체의 대북 교류와 지원사업이 활기를 띠 전망이다. 6개 항의 공동발표문에 '다양한 분야의 민간교류 활성화'가 포함됐다. 최근 정부가 밝힌 북한과의 사회·문화교류 및 인도적 지원사업 허용 방침과도 맞물려 지자체 차원의 협력사업이 붐을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예측이 어려운 남북관계의 특성상 신중한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25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시는 올해 북한이 역점을 두고 대규모로 추진 중인 세포등만 목장을 지원하기 위한 축산업

협력과 통일 동화책 지원 등 남북교류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소요 예산은 3억 6000여만원 정도로 예상된다.

특히 광주시의 목장 지원 사업은 북한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대규모 목장 조성사업인 세포등만 목장 완공에 맞춘 축산분야 협력사업이어서 성사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시는 육우인 한우보다는 낙농사업 위주의 젖소를 기증하는 한편 북측과 협의해 초산 젖소를 추가 지원하고 정자 등도 기증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우수생산을 통해 북측 어린이 영양개선 사업과도 연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또 26일에는 (사)남북통일운동권민연합 광주지회 주최로 광주시의회 예결

위 회의실에서 'PEACE ROAD 2015 광주시 통일대장정'행사를 연다.

전남도는 민선 6기 들어 추진중인 북한의 땅끝 함경북도에 미역과 쌀을 보내는 '땅끝협력' 대북교류사업, 함경북도 산모·영유아 및 불우아동 대상 인도적 지원, 통일부 주관 '대북 산림협력사업 기금' 지원 사업 등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는 최근 새마을부녀회와 연대해 함경북도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위한 1억원 규모의 예산도 확보했다. 남북관계가 정상화될 것을 대비해 지자체 차원에서의 준비를 마친 셈이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조만간 정부와 협의를 재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도는 남북교류사업의 재원 마련을 위해 현재 21억4800만원 수준인 남북교류협력 기금도 오는 2017년까지 50억원으로 확대 조성할 방침이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다시 열린 민통선

남북 고위급 접촉이 25일 새벽 극적으로 타결된 가운데 이날 오전 경기도 최북단 연천군 중면 황산리에서 학생을 태운 군내초등학교 통학버스가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 초소를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 '전쟁'까지 언급 험악한 분위기...양측 '평화' 의지로 반전시켜

■ 무박4일 협상 합의 배경은

사과對확성기 중단 팽팽히 맞서

김관진·황병서 1:1담판 실마리

'전쟁' 발원까지 나오는 등 한때 험악한 분위기가 흘렀던 남북 고위급회담이 25일 협정에 이를 수 있었던 배경은 이번 사태를 평화적으로 풀어나가겠다는 양측의 강한 의지였다고 한다.

한반도 정세가 일촉즉발의 위기로 치닫는 가운데 22일 저녁 판문점에서 시작된 협상에서 남북 대표단은 25일 새벽까지 무박(無泊) 4일간 일일일회의의 공방을 벌였다.

남북회담에서 밤샘 협상은 흔하 않았던 일이지만, 이번처럼 사흘 연속 밤을 새워

가며 끝장토론이 이어진 경우는 유례가 없었다.

우리 측의 핵심 요구사항은 목함지뢰와 포격 도발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이었고 북측은 난색을 표했다. 협상장에서는 고성어 오갔고 심지어 '전쟁' 언급까지 나왔다는 것이 정부 당국자들의 전언이다.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채 공전하던 협상은 양측 수석대표인 김관진 국가안보실장과 황병서 인민군 총정치국장이 거듭 비공개 1대 1 담판을 가지면서 차츰 반전의 계기를 찾아가고 있다.

양측은 24일 오전 북한이 사실상 사과의 형태로 무력도발에 유감을 표하고 한국은 대북 심리전을 중단한다는 방식으로 절충점에 도달했다. 그러나 남북 대표단이 박근혜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방위 제1위

원장의 최종 재가를 받는 과정에서 또다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다.

특히 북측이 확성기를 이용한 대북심리전을 영구 중단한다는 문구를 합의문에 넣자는 요구를 추가로 들고 나오면서 협상은 막판까지 상당한 진통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협상 현장을 실시간으로 지켜보며 일련의 과정을 직접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북측 대표인 황 총정치국장과 김양건 노동당 대변비서 역시 김 제1위원장의 실시간 지시를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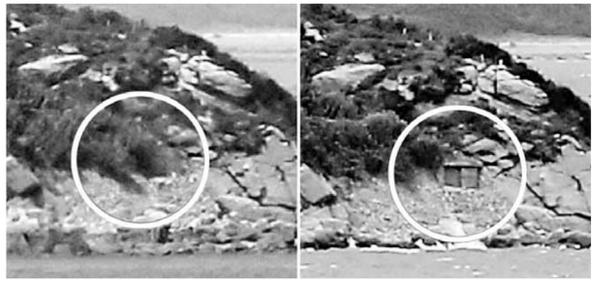
다만 황 총정치국장 등은 도·감청 우려 때문인지 중요한 사안과 관련해선 북측 지역으로 이동해 김 제1위원장의 지침을 받았다고 한다. 이들은 24일 새벽 이와 관련해 우리 측에 차량 준비를 요구하기도 했다.

일각에선 황 총정치국장이 180km 떨어진 평양에 가서 김 제1위원장에서 직접 지침을 받았을 것이라 이야기도 나온다.

한편 1차 접촉이 9시간 45분, 2차 접촉이 33시간 25분씩 나흘에 걸쳐 총 43시간 10분에 이르는 마라톤 협상이 이어지면서 양측 대표단은 체력적으로도 큰 부담을 느낀 것으로 전해졌다.

북측 김양건 당 비서는 73세로 남북 대표단 중 가장 고령이다. 1949년생 동갑내기인 김 안보실장과 황 총정치국장과 66세로 적은 나이가 아니다. 가장 젊은 홍 장관은 1964년생(51세)이지만 역시 만만치 않은 피로를 느낀 것으로 알려졌다.

워낙 피말리는 대치가 이어진 까닭에 대표단 관계자들은 간간히 의자에서 토막잠을 자는데 만족해야 했다고 한다. /연합뉴스



문 닫은 北 포진지

남북 합의가 이뤄진 25일 오후 인천시 옹진군 연평면 망향전망대에서 바라본 북한 장제도의 포진지(오른쪽)가 닫혀 있다. 왼쪽 사진은 남북 긴장상태가 고조된 지난 22일 같은 곳의 포진지가 열려 있는 모습. /연합뉴스

## 대북 확성기 방송 심리전 위력 만만찮네

방송 보름만에 중단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로 11년 만에 재개된 대북 확성기 방송이 대북 심리전 수단으로서의 위력적인 가치를 보여줬다는 평가다.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문제는 이번 남북 고위급접촉에서 목함지뢰와 포격 도발에 대한 북측의 사과 문제와 함께 핵심 의제였다. 북측은 고위급접촉 과정에서 확성기 방송 중단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고 우리 측은 북측의 사과와 재발 방지를 강하게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소하게는 '오늘의 날씨'부터 김숙하 개는 북한 정권의 치부를 드러내는 소식까지 거침없이 내보내는 방송 내용에 최

전방에 근무하는 북한군 신세대 병사들이 크게 동요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방송 내용은 '자유민주주의 우월성 홍보', '대한민국 발전상 홍보', '민족 통일성 화북', '북한사회 실상'의 4부분으로 구성됐다. 이 가운데 북한사회 실상에 관한 것이 가장 핵심이다. 북한의 내부 소식 뿐 아니라 북한 인권 탄압 실태와 인권의 중요성까지 방송으로 내보냈다. 그래서 북한엔 쥐악이나 마찬가지로는 평가가 나온다.

남북은 고위급접촉에서 남측의 11개 지역에서 시행된 확성기 방송을 재개 15일 만인 25일 정오부터 중단하기로 합의했다. /연합뉴스

## '독심' 김관진·'브레인' 홍용표 ...합의 이끈 환상 콤비

남북이 극적으로 합의안을 도출한 것은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독심'과 홍용표 통일부 장관의 '브레인'이 환상의 콤비를 이룬 결과라는 평가다.

올해 66세인 김 실장은 15년이나 어린 홍 장관과 호흡을 맞춰 북측 대표로 나선 황병서 총정치국장과 김양건 노동당 비서

와 대좌했다. 김 실장과 홍 장관은 이번 마라톤 협상에서 북한이 지뢰도발사태에 대한 책임을 부인하는 등 남북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졌을 때에도 흔들림 없이 북측을 설득해 결국 북한 측으로부터 유감 표명과 재발방지 약속을 받아냈다.

이번 협상에서는 특히 수석대표로 나서 협상을 주도한 김 실장의 활약이 돋보였다는 후문이다. 김 실장이 자신감을 갖고 협상을 이끌어갈 수 있었던 데에는 특유의 독심에다가 박근혜 대통령의 두터운 신임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통일·외교 분야 전문가인 홍용

표 장관의 '브레인'이 김 실장의 '독심'과 맞물려 시너지 효과를 냈다는 분석이다.

올해 51세인 홍 장관은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출신으로 박 대통령의 통일분야 '브레인'으로 통한다.

홍 장관은 이번 접촉에서 노련한 협상가인 김양건 북한 노동당 비서 등에 맞서 논리 정연하게 북한의 DMZ 지뢰도발과 서부전선 포격도발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KBS1TV "아침마당" 생방송 출연** (백명숙 이사, 유강선 원장 출연) **빠른 성사! 결혼성사시까지!**

**중매 잘한다~ 성사 잘한다~ 소문!**

회장 : 서울대학교 법대졸업 (공공기관 다년제) 광주서초초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동문 결혼정보 서비스업체 전남대학교

초혼	추천회원	재혼
<b>의사, 변호사, 약사, 한의사</b> 27-45세 <b>판사, 검사, 변리사, 회계사</b> 28-47세 <b>공무원(5급-9급)</b> 27-42세 <b>사법, 행정고시 합격자</b> VIP <b>삼성, 현대, LG 직원</b> 28-47세 <b>은행원, 연구원</b> 29-49세 <b>대(중,소)기업 직원</b> 27-48세 <b>사업가, 자영업</b> 29-39세 <b>세무사, 연구원</b> 29-48세 <b>국영기업체 직원</b> 29-39세 <b>교사, 교수</b> 28-49세	<b>전문직 희망 여성</b> 25-38세 <b>오케스트라단원, 회사원</b> 26-41세 <b>간호사, 유치원 교사</b> 27-42세 <b>의사, 약사, 교사</b> 25-39세 <b>변호사, 회계사, 변리사</b> 26-39세 <b>공무원(5급-9급)</b> 27-42세 <b>정부투자기관 직원</b> 25-38세 <b>간호사, 은행원</b> 26-47세 <b>학원(음악)원장, 강사</b> 27-42세 <b>스튜어디스, 영양사</b> 26-42세 <b>미스코리아, 미스전북</b> 27-36세	<b>의사, 변호사</b> 32-65세 <b>국영기업체 기관장</b> 52-66세 <b>공무원, 교사, 교수</b> 35-65세 <b>대기업 간부</b> 36-59세 <b>회사원, 자영업</b> 33-67세 <b>'무출산 여성' 희망</b> 31-58세  <b>VIP 희망 여성</b> 29-53세 <b>학원(음악)원장, 강사</b> 27-63세 <b>공무원, 교사</b> 32-58세 <b>간호사, 회사원</b> 29-48세 <b>자영업, 교사</b> 35-64세 <b>'무자녀 남성' 희망</b> 28-48세

**임페리얼 클럽**

강남역 7번출구 70m 해나로빙 810 6층

**02) 521-4405**

호남지사 (063) **275-7766**

마음의 소리를 듣고  
고객의 입장에서 공감하며  
전문성으로 만족스런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서명심 변호사입니다.**

형사, 민사, 가사, 행정

사기·성범죄·교통사고  
이혼·재산분할·위자료  
대여금·공사대금·손해배상  
보험금 등 각종 금융사건

**법률사무소 名家 변호사 서명심**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로 70, 동산빌딩 1층(법원 버스정류소)  
대표전화 062)227-7223 팩스 062)227-7224

**법원경매(공매, NPL)**  
조여사 추천물건  
**010-6211-4585**

- ★동구 대의동 문화의전당부근 지하1층~지상3층  
대지306㎡ 건물399㎡ 위치, 접근성★★★★★  
카페, 프랜차이즈, 사육적합  
감정가7억3천1백 최저가7억3천1백
- ★북구 일곡동 일곡중앙교회인근 카페거리  
대지754.6㎡ 건물1653㎡ 지하1층~지상4층(E/V있음)  
식당, 카페, 프랜차이즈 상권좋은 수익성★★★★★  
감정가16억2백 최저가11억2천 감정가의70%
- ★장성군 북이면 신평리 백양사IC인근 2층공장  
대지9,341㎡ 건물2,031㎡ 건물상태★★★★★  
유제품제조공장 물류창고위치최적  
감정가41억5천 최저가11억9천 감정가의29%
- ★중구 학동 지하2층~지상5층 근린주택  
대지456㎡ 건물1802㎡ 전대방원맞은편 도로접  
양·한방병원 위치, 접근성★★★★★  
감정가23억2천2백 최저가16억2천6백 감정가의70%
- ★북구 두암동 지하1층~지상3층근린주택  
대지198.2㎡ 건물512㎡ 접근성★★★★★  
헤어샵, 의류매장 모든업종가 시내버스승강장부근  
감정가3억9천8백 최저가3억1천9백 감정가의80%

※ 토지, 주택, 상가, 공장, 잔금대출까지 상담가능  
맞춤형 부동산 컨설턴트 (주)다와옥션